

'종영-2회' 웰메이드 '쌈마이웨이'에 남는 아쉬움



역지스럽다. 싱그러움 청춘들을 영을 눈앞에 두고 극단적인 소재와 역지 전개로 이야기를 마무리 지으며 시청자들을 가우뚱하게 만들었

종영 앞두고 극단적 소재와 역지 전개 등 '꿈' 이뤄가는 과정 그리는 부분 아쉬움 커

지난 4일 방송된 KBS 2TV 월화 드라마 '쌈 마이웨이' (연출 이나정, 극본 임상준, 제작 팬엔터테인먼트) 14회에서는 고동민(박서준 분)과 최애라(김지민 분)의 달달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청각 상실' 장면이 등장했다.

이날 고동민은 최애라의 만류에도 김탁수와 대결을 위해 링 위에 올랐다.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뻔한 과거사를 마무리 짓기 위한 중요한 경기였다. 김탁수는 고동민의 단점인 그라운드 기술을 시도했고, 결국 두 사람 모두 부상을 입었다.

고동민은 얼굴에 부상을 당해 피를 철철 흘렸고 김탁수는 뇌출혈 증상으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기장을 빠져 나온 고동민은 최애라와 대화하면서 청각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오열했다.

이에 앞서 최애라는 방송국 아나운서 면접 대신 격투기 현장 아나운서 면접에 응해 극적으로 합격했다. 그뿐만 아니라 6년 만에 끝내 결별

한 김주만(안재홍 분)과 백설희(송하윤 분)의 이야기에도 진전이 있었다. 김주만은 백설희가 화상을 당할 위기에 처하자 몸을 날려서 그를 구하고 대신 부상을 당했다.

후반부 역시 당황스럽긴 마찬가지였다. 고동민의 경기를 보러 온 남일(곽시양 분)이 황복희(진희경 분)에게 "내가 엄마라고 하니 이게 내지 않겠어?"라고 묻는 장면 역시 그동안의 전개와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로 의아함을 남겼다.

시간이 부족해서일까. 청각 이상, 부상, 오열, 화상, 그리고 면접 합격 모두 한 회에 등장했다. '쌈마이웨이'는 그동안의 색깔과는 완전히 다른 극단적인 전개를 택하며 다소 당황스러운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꿈'을 이뤄가는 과정을 그리는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크다. '쌈마이웨이'는 인물들의 러브스토리와 함께 이 시대 '마이너'한 청춘들의 꿈을 찾아가는 이야기를 동시에 진행시켜왔다. 고동민과 최애라가 이번이 꿈의 문턱에서 좌절하면

서도 끝까지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은 많은 시청자들이 공감했던 이야기이기도 하다. 하지만 최애라와 고동민의 꿈을 향한 과정은 섬세하지 못했고, 현실에서는 일어나기 힘든 '행운'에 기댄 점이 아쉽다.

몇 번의 아나운서 면접에서 탈락했던 최애라가 자신이 진짜 가슴 뛰는 일을 찾아 격투기 아나운서로 방향을 튼 것은 이해하더라도, 합격 장면은 설득력이 부족하고 성급했다.

최애라가 격투기 아나운서가 되기 위한 노력과 성과를 차분히 그려 내지 못했다. 외국에서 온 보기 드물게 개방적이고 기본과인 심사위원의 한 마디로 합격한 것은 비현실적이다. 중요한 경기를 앞둔 고동민의 결정적 순간에 그를 도우려고 전설적인 격투기 선수 최리엔강이 조력자로 등장한 것 역시 마찬가지다.

종영까지 단 2회가 남았다. 제12회가 등장하는 여러 로맨틱 코미디와 달리 현실 청춘들의 이야기를 유쾌하고 현실있게 다루며 사랑받은 '쌈마이웨이'. 많은 애청자들은 이 드라마의 유종의 미를 바라고 있다.

'쌈마이웨이'가 사랑받은 이유가 다시 한 번 생각해볼 때다.

시즌 사상 최고 시청률 '신서유기4', 웃음 구멍이 없다



웃음 구멍이 없다. tvN '신서유기4'가 마형 강호동부터 막내 송민호에 이르기까지 립 하나 없는 활약으로 웃음이 새어나

가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지난 시즌에 이은 재회에 케미는 최상이며 뽀빠 하나 하나 컨디션이 최고조다.

이번 시즌 가장 먼저 두각을 나타낸 것은 뉴 라인업 송민호와 규현. 시즌3에서 '송모지리'로 백치미를 뽀낸 송민호와 '조아비규환'으로 좌절의 아이콘이 된 규현은 시즌4에서 이를 뛰어넘는 캐릭터의 향연을 펼치고 있다.

송민호는 게임마다 제작진의 예상을 뛰어넘는 활약으로 반전을 선사하고 있다. 코끼리 코를 하고 15바퀴를 돈 뒤 작은 점을 정확히 찍

'조쟁병이'에 등극하는가하면, 고갈 착용으로 인한 '조뽀'로 까지 별명까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웃음에 일조하고 있다.

'구미' 은지원과 '신미' 안재현도 제대로 미친 웃음을 선사하고 있다. 특히 4일 방송에서 은지원은 게임에 우승해 휴식권을 얻었음에도 진행자 겸 방해자의 역할을 자처해 시청률 상승의 일등공신이 됐다. 안재현도 은지원을 보완해 게임의 변수 역할을 톡톡히 했으며, 저녁 미션에서는 게임을 맞출 때마다 '신서유기'에서는 좀처럼 들을 수 없는 사랑스런 감탄사로 반전을 선사했다.

이수근의 하드캐리도 명불허전이다. 강변가요제 출신인만큼 음악 게임에서 '인간 주크박스'로 독주하며 박재미를 이끌어 냈다. 제작진마저 깜짝 속물만큼 능청스러운 베트남어는 중국어 개그를 잇는 개인기로

자리매김했다. 피콜로 분장을 누구보다 활짝 같이 소화하며 초록색 얼굴과 피우슬더 맘모만으로 미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예능감을 되찾은 '감호동' 강호동도 '신서유기4'에서 완전한 부활을 외쳤다. 시즌1에서 인터넷 방송에 적응 못해 절절했던 그가 맞나 실을 정도로 광복합만한 성장이다. 은지원의 이름을 198년 외쳐 소름끼치는 반전의 주인공이 됐고, 맥주를 건 노래게임에선 맞고도 정자 병을 못 열거나 여유를 부리다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하는 굴욕으로 웃음보를 자극했다.

6인의 신들린 활약에 시청률도 춤 추었다. 4회에서는 케미, 위성, IPTV가 통합된 유료플랫폼 가구 시청률이 평균 3.8%, 최고 4.0%(닐슨 코리아/전국기준)를 기록하며 '신서유기' 전 시즌을 통틀어 최고 시청률을 경신했다.

더 무섭고도 기대되는 건 '신서유기'의 포텐이 폭발한 시즌4가 이제 겨우 시작이라는 것이다.

'뜨거운 사이드', 내달 3일 첫 방송



오는 8월 대대적인 개편을 앞두고 있는 온스타일이 개편을 맞아 새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최신 이슈를 다룬 시점에서 이야기하는 토크쇼 '뜨거운 사이드'가 8월 3일 밤 12시 20분 첫 방송하는 것.

먼저 온스타일은 기존의 패션, 뷰티 '장르' 채널에서 타깃 채널로 개편한다. 메인타겟은 20~34세 여성으로, 주제적이고 나 자신에게 관심이 많은 '빌레니얼' 여성들로부터 특히 큰 공감을 이끌어내는 채널로 거듭날 예정이다.

이러한 온스타일의 변화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프로그램이 바로 '뜨거운 사이드'다. '뜨거운 사이드'는 이슈가 목마를 때리는 프로그램 태고에서 엿볼 수 있듯이, 6인의 여성 출연진이 한 주를 '뜨겁게' 달군 화제의 인물, 최신 이슈에 대해 사이드처럼 '속 시원하게'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아나운서 박혜진, 코미디언 김숙, 배우 이영진, 변호사 김지예, CEO 이여영, 저널리스트 이지혜 등이 프로그램을 이끈다. 여성 출연진으로만 구성된 '뜨거

운 사이드'는 최신 이슈를 바라보는 여자들의 시각에 목말라 있던 시청자들의 갈증을 효과적으로 해소해줄 프로그램이 될 전망이다. 다양한 주제를 놓고 다양한 이야기를 풀어내는 여성 출연자들의 주제적 사고와 대담한 입담이 특별

한 재미를 선사할 예정이다.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문신에 PD는 "당당하고 매력적인 여성들이 한데 모여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면 어떻게 하는 생각에서 시작될 프로그램이다"며 "'뜨거운 사이드'라는 제목에 걸맞게 현재 진행형인 뜨거운 이슈들에 대해 속 시원한 사이드 멘트를 던질 수 있는 분들을 섭외하는 게 가장 중요한 지점이었다"고 제작 및 이야기를 전했다.

이어 "최근에 출연진이 다같이 모이는 자리가 있었는데 다들 초반 인지도도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다. 각자 다른 방면에서 활동하는 분들의 다양한 시선을 보는 즐거움이 있었다. 여섯 명의 날마다 에너지가 여성 시청자들을 넘어 남녀노소 모두에게 전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온스타일 '뜨거운 사이드'는 오는 8월 3일을 시작으로 매주 목요일 밤 12시 20분에 방송된다. 온스타일과 올리브에서 동시 방송 된다.

영화 '군함도', 15세등급 확정

1000만 꽃길 예약이다. 등급도 러닝타임도 딱 좋게 확정됐다.

4일 영화등급위원회(영등위) 측에 따르면 영화 '군함도' (류승완 감독)는 15세관람등급을 받았다.

영등위 측은 "군함도는 일제 강점기 일본의 군함도에 강제 수용된 조선인들의 탈출기를 그린 영화로 일본군에 의한 조선인의 수난사를 다루고 있다. 표현에 있

어 총·갈 등에 의한 잔인한 살상 장면, 고문 장면 등에서 폭력성과 긴장감의 공포 요소가 있어 청소년에게 유해할 수 있으나 15세 이상은 관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러닝타임은 132분으로 너무 길지도 그렇다고 너무 짧지도 않다. 역사적 메시지와 영화적 재미를 모두 담아내기에 딱 적절하다는 평이다.

'군함도'는 기획 단계부터 1000만 돌파를 기대케 한 대작이다. 수치상으로는 200여이 넘는 제작비가 투자됐고 기본 손익분기점만 700만 명이다. 포 소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을데다가 이를 류승완 감독이 진두지휘, 여기에 황정민·소지섭·송중기·이정현 등 연기력은 물론 흥행과 스타성에 일기견이 있는 배우들이 의기투합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 반전이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특히 본격적인 홍보를 시작한

후 류승완 감독은 여러 번 '군함도'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는 비단 흥행을 겨냥해서가 아니라 감독으로서 작품에 대한 신뢰를 표하는 것. 자신의 전작들과도 다를 바가 없는 한국 영화들과도 다르다고 강조한 만큼 어떤 영화로 탄생했는지 관심이 쏠린다.

'군함도'는 일제 강점기, 일본 군함도에 강제 징용된 후 목숨을 걸고 탈출을 시도하는 조선인들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7월 20일 개봉한다.

惠山이 바라본 오늘의 운세 2017년 7월 6일 목요일 (음력 5월 13일)

- ▶**황띠** 36년생 자식복을 얻는다 48년생 산행을 삼가라.60년생 구설수에 오를 수 있다.72년생 이거다 싶으면 밀고 나가라.84년생 사소한 감정에 주의하라.
- ▶**흰띠** 37년생 외출을 삼가라.49년생 노력과 인덕이 비례한다.61년생 주위의 도움으로 일이 성사된다.73년생 작은 성과에도 크게 만족해라.85년생 첫술에 배부르지 않는다.
- ▶**황띠** 38년생 화를 다스리고 건강에 유의해야한다.50년생 부부의 정이 더욱 돈독해진다.62년생 문서 계약문이 있다.74년생 손재수에 조심해야한다.86년생 꿈을 접지마라.
- ▶**흰띠** 39년생 미련을 버려라.51년생 큰 수확을 이룰 것이다.63년생 계약은 절대 안된다.75년생 회비가 교차하니 무리수는 금물이다.87년생 자리를 넘겨주지 않으려거든 멈추지 마라.

- ▶**황띠** 40년생 배려하는 마음을 길러라.52년생 건강에 더욱 유념하라.64년생 이사에 신중하라.76년생 끝까지 밀고 나가라.88년생 열심히 하면 진로 걱정은 없다.
- ▶**흰띠** 41년생 재물을 잘 관리하라.53년생 새로운 사람을 소개 받는다.65년생 부부관계를 원만히 하라.77년생 기다림을 알아라.89년생 과한 욕심을 버리고 함께 하는 마음을 가져라.
- ▶**황띠** 42년생 귀인을 정성껏 맞이하라.54년생 믿음 아래 덕을 받는다.66년생 목표를 크게 잡고 멀리보라.78년생 근신하고 자숙할일이 생긴다.90년생 합심하면 인덕이 크다.
- ▶**흰띠** 43년생 배려하는 마음을 길러라.55년생 건강에 더욱 유념하라.67년생 이사에 신중하라.79년생 뜻밖의 행운이 온다. 91년생 열심히 하면 진로 걱정은 없다.

- ▶**황띠** 32년생 부드러움을 잃지마라.44년생 믿음을 유지하면 복을 받는다.56년생 뜻밖의 재물복이 있다.68년생 교통사고에 대비하라.80년생 책임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조심하라.
- ▶**흰띠** 33년생 개지가 집 주위를 맴돈다.45년생 금전거래에 주의하라.57년생 누적된 불만을 효과적으로 처리하라.69년생 손풍에 뜻을 높이 올린다.81년생 욕심을 버려라 뜻을 이룬다.
- ▶**황띠** 34년생 외출을 삼가라.46년생 노력과 인덕이 비례한다.58년생 주위의 도움으로 일이 성사된다.70년생 작은 성과에도 크게 만족해라.82년생 첫술에 배부르지 않는다.
- ▶**흰띠** 35년생 귀인을 정성껏 맞이하라.47년생 믿음 아래 덕을 받는다.59년생 목표를 크게 잡고 멀리보라.71년생 근신하고 자숙할일이 생긴다.83년생 합심하면 인덕이 크다.

★ 해산철학연구원 010-2622-2350 ★